



경제통통

FOCUS

- 서울시, 111억 원 펀드 조성해 청년기업과 G밸리 기업에 투자

ZOOM IN

- 서울시, 스타트업 지원 위해 10,000개 기업과 비즈니스 네트워킹 구축
- 서울앱비즈니스센터, 앱 개발 창업 사관학교로 변신

HOT ISSUE

- 서울시, 청년봉제인력 채용하면 10개월간 고용보조금 지원
- 마포농수산물시장, 서울시 대표 농수산물 전통시장으로 육성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고태경 kotaekyung@seoul.go.kr

FOCUS I 01

서울시, 111억 원 펀드 조성해 청년기업과 G밸리 기업에 투자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기업과 G밸리에 위치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111억 원의 펀드가 조성되어 8월부터 운용을 시작한다. G밸리는 구로구 구로동, 금천구 가리봉동·가산동의 영문 공통 이니셜인 'G'에 '밸리'를 합성시켜 만든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별칭으로 서울시 최대의 산업 집적지이자 고용 중심지이다. * G밸리 내 총 9,832개 기업체가 입주. 총 16만여 명이 종사. 종업원 수 30명 미만인 창업 초기 중소기업이 대다수

111억 원 펀드 공식명칭은 'G밸리-플래티넘 청년창업펀드'이다. 조성된 펀드는 투자 기간 4년을 포함해 9년간 장기적으로 운영하여 청년기업과 G밸리 내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안정적인 투자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구분	투자규모	내용(주목적투자외 특수목적투자는 중복 가능(예: G밸리 소재 청년기업 등))
주목적 투자	약정총액의 6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력 3년 또는 7년 이내의 창업자로서 연간 매출액 10억 원 미만 - 대표이사 만 39세 이하 또는 29세 이하 임직원 50% 이상
특수목적투자 (서울시 등 4개 기관)	출자금액의 150% (투자금액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G밸리 소재 기업(본사, 지점, 공장 또는 연구소가 G밸리 내에 소재한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중소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 벤처기업: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 기술·경영 혁신형 중소기업: 중소기업기술 혁신촉진법에 따라 선정된 기업

이 펀드는 서울시 등 4개 기관(구로구, 금천구, SBA)이 16억 원을 정부의 모태펀드와 투자운용사가 공동 출자하였다. 초기 창업기업이 대다수인 G밸리 내 기업들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손꼽는 것이 자금조달 및 운용인만큼 청년기업과 G밸리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번 1호 펀드를 시작으로 운용 과정에서 투자대상 기업 발굴 등 투자 가능 규모 등을 검증하여, 2020년까지 G밸리 기업 투자펀드를 4호까지 조성해 운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1호 G밸리 기업 투자펀드가 서울시, 구로구, 금천구, SBA, 모태펀드 등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협력해 조성한 펀드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G밸리 기업 투자펀드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으로 청년기업 및 G밸리 소재 중소기업의 사업 규모 확대와 내실화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ZOOM IN 01

서울시, 스타트업 지원 위해 10,000개 기업과 비즈니스 네트워킹 구축

서울시가 창업을 준비하는 기업가들에게 공간, 커뮤니티,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고,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0,000개 기업을 회원사로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공유기업 위워크(WeWork)와 손을 잡았다.

* 위워크(WeWork)는 전 세계 30개 도시에 100개 이상의 지점을 둔 세계 최대의 사무실 공유 서비스 기업으로 전 세계 약 10,000개 기업을 멤버로 두고 있으며, 기업들 간의 비즈니스 네트워킹 기회 제공 및 커뮤니티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2010년 뉴욕에 처음 설립된 이후 급속히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2015년 가장 혁신적인 회사로 선정(Fast Company Magazine)된 바 있다.

**시, 30대 도시
10,000개 회원사
가진 세계적인
공유기업인
위워크와 MOU 맺어**

박원순 시장은 세계적인 공유기업인 위워크의 공동창업자인 미구엘 맥켈비(Miguel McKelvey)를 만나 서울시의 혁신 및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호적 협력을 강화하는 MOU(16.7.27.)를 체결하고 스타트업 육성과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해 힘을 모았다.

MOU 체결식에 이어 위워크의 국내 1호 사무실이 8월 1일(월) 강남역에 문을 열었다. 미구엘 맥켈비는 “서울은 오랜 기간 세계적 기업들의 허브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이 및 스타트업, 창의적 인재가 밀집해 있는 도시”라며, “위워크는 강남역에 입주한 다국적 기업, 대기업, 중소기업들과 전 세계 100개 지점에 입주한 다른 멤버들 간 네트워킹을 제공함으로써 한국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 효과적인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하고,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해 해외진출
적극 지원할 것**

시는 위워크가 제공하는 공간 및 스타트업 창업 지원프로그램이 국내 스타트업에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해외진출을 위한 좋은 엔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는 “세계 최대의 사무실 공유서비스 기업인 위워크와의 협력은 서울이 혁신과 창조경제의 중심도시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창업허브, 글로벌 창업센터와 위워크의 공간, 커뮤니티 지원 서비스의 시너지 효과를 기반으로 스타트업을 하기 좋은 효과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ZOOM IN | 02

서울앱비즈니스센터, 앱 개발 창업 사관학교로 변신

올해 새롭게 문을 연 서울앱비즈니스센터가 창업 열기로 뜨겁다. 이곳이 모바일 앱 개발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와 청년창업가가 입주해 스타트업 사관학교로 변신한 것이다.

서울앱비즈니스센터에 12.7대 1 경쟁률 통과한 앱 개발 청년(예비) 창업자 입주, 종합 인큐베이팅 지원

신청한 560개 팀 중 12.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청년(예비)창업자 44개 팀에는 입주일(8월 8일)로부터 약 7개월간 센터 내 개발 공간 무료 제공(서울시), 최대 1억 원의 마케팅 및 사업화 비용 지원(중소기업청) 등 스타트업을 위한 단계적이고 종합적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특히, 입주 청년(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전문 강사진으로 구성된 창업 일반 교육과 기술, 마케팅 등의 교육이 약 2개월간 진행되고, 입주 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경영·기술·마케팅·투자 등 분야별 전문가의 세심한 멘토링이 병행된다.

* 44개 팀은 창업유무에 따라 예비창업자 19개 팀과 창업한 지 3년 이내 창업자 25개 팀으로 구성되었고, 업종분야로는 4개 분야(웹/앱, 융합, 콘텐츠, SW)이다.

시, 중소기업청 스마트벤처창업학교와 연계해 최고의 앱 창업 공간 만들 것

서울시는 “올해 새롭게 문을 연 서울앱비즈니스센터의 첫 번째 입주자로 가능성이 무한한 예비 창업자를 맞이하게 되어 기쁘다.”며, “중소기업청의 스마트벤처창업학교와의 연계 운영으로 시너지를 높이고, 입주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단계적인 지원을 통해 국내 최고의 모바일 앱 개발 창업지원센터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앱비즈니스센터(☎ 02-2124-2771, 2772)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 청년봉제인력 채용하면 10개월간 고용보조금 지원

서울시가 청년인력 선발을 장려하고, 의류제조분야의 숙련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봉제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청년 필요한 봉제공장과
일자리 필요한 청년
연계해 고용보조금 및
취업장려금 지원**

시는 이를 위해 청년인력을 고용하는 고용주에는 고용보조금(70만 원)을 10개월간 지원하고, 청년인력을 고용한 의류제조업체와 최저임금 등 제반 근로기준 준수는 물론 청년인력의 다양한 실습 및 기술전수, 학업 병행 지원을 골자로 업무협약을 체결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는 청년인력의 장기 근무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취업장려금(30만 원)을 지원하는 동시에 전문가로서의 역량 배양을 위해 패션, 디자인, 유통, 마케팅 등 패션산업 전반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청년봉제인력 양성을
위한 일자리 매칭데이에
15개 의류제조업체 참여**

이 사업의 첫 시작으로 서울 소재 특성화고 및 공업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 등)가 보증하는 재능 있는 예비졸업생과 젊은 인재 수급이 필요한 의류 제조업체를 연계하는 '청년봉제인력 양성을 위한 일자리 매칭데이(Job Matching Day)'가 개최(16.8.18)되었다. '청년봉제인력 일자리 매칭데이'는 패션산업의 기반인 봉제산업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년인력 유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시작되었다.

이번 행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청년 인력양성을 희망하는 의류제조업체와 취업을 희망하는 예비졸업생 간 현장만남을 통해 업계 정보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구인·구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또한, 취업예비생에게 사업 참여 공장의 현황 및 연락처 등을 사전에 제공하여 우선 취업을 희망하는 업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이번 매칭데이 현장에서 다양한 의류제조업체를 비교하고,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교육까지 진행되었다.

**시, 고부가가치
패션분야 미래 위해
봉제직업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것**

서울시는 “봉제산업은 고부가가치 패션문화산업의 근간이자 패션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기반산업”이라며 “봉제공장에 취업하는 청년인력이 안정적이고 가치 있는 패션봉제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HOT ISSUE | 02

마포농수산물시장, 서울시 대표 농수산물 전통시장으로 육성

서울시는 마포농수산물시장을 '서울시 대표 농수산물 전문 전통시장으로 육성'하고자 2016년 11월 1일부터 농수산물유통 전문기관인 서울시 농수산물식품공사에서 관리·운영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시는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과거 폐기물처리장이었던 스토리를 반영한 특색 있는 시설 현대화를 통해 서울시 대표 전통시장 관광명소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유통단계 축소, 안전성 검사로 저렴하고 안전한 농수산물 지역주민에게 공급

시는 소매비용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유통비용을 축소하여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서울시 전통시장의 농수산물 기준 가격을 제시하는 새로운 모델로 육성하여 서울시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서울시 농수산물식품공사에서 당일 반입된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시장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폐기물처리장 스토리를 반영한 특색 있는 서울시 대표 전통시장으로 관광명소

마포농수산물시장은 1998년 폐기물처리장을 리모델링하여 개장했다. 시설이 노후화되어 시에서 연간 시설보수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시장 소유권과 운영권이 서울시와 마포구로 나누어져 있어 마포구의 마포농수산물 시장 운영 수익금이 시장을 위한 재투자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 소유권과 운영권을 일치시켜 시에서 단기적으로 보수가 시급한 시설을 개보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시설 현대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커뮤니티 공간조성, 주민 친화적 시설 등을 갖춘 "서울시의 대표 농수산물 전통시장 관광명소"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시와 마포구가 마포시장 운영권을 두고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보다 침체된 마포농수산물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가 마포구민과 시장상인들의 실질적인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농수산물 유통 전문기관의 관리·운영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시설을 현대화하여 서울시를 대표하는 농수산물 전통시장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말했다.